「青龍」이 「獅子」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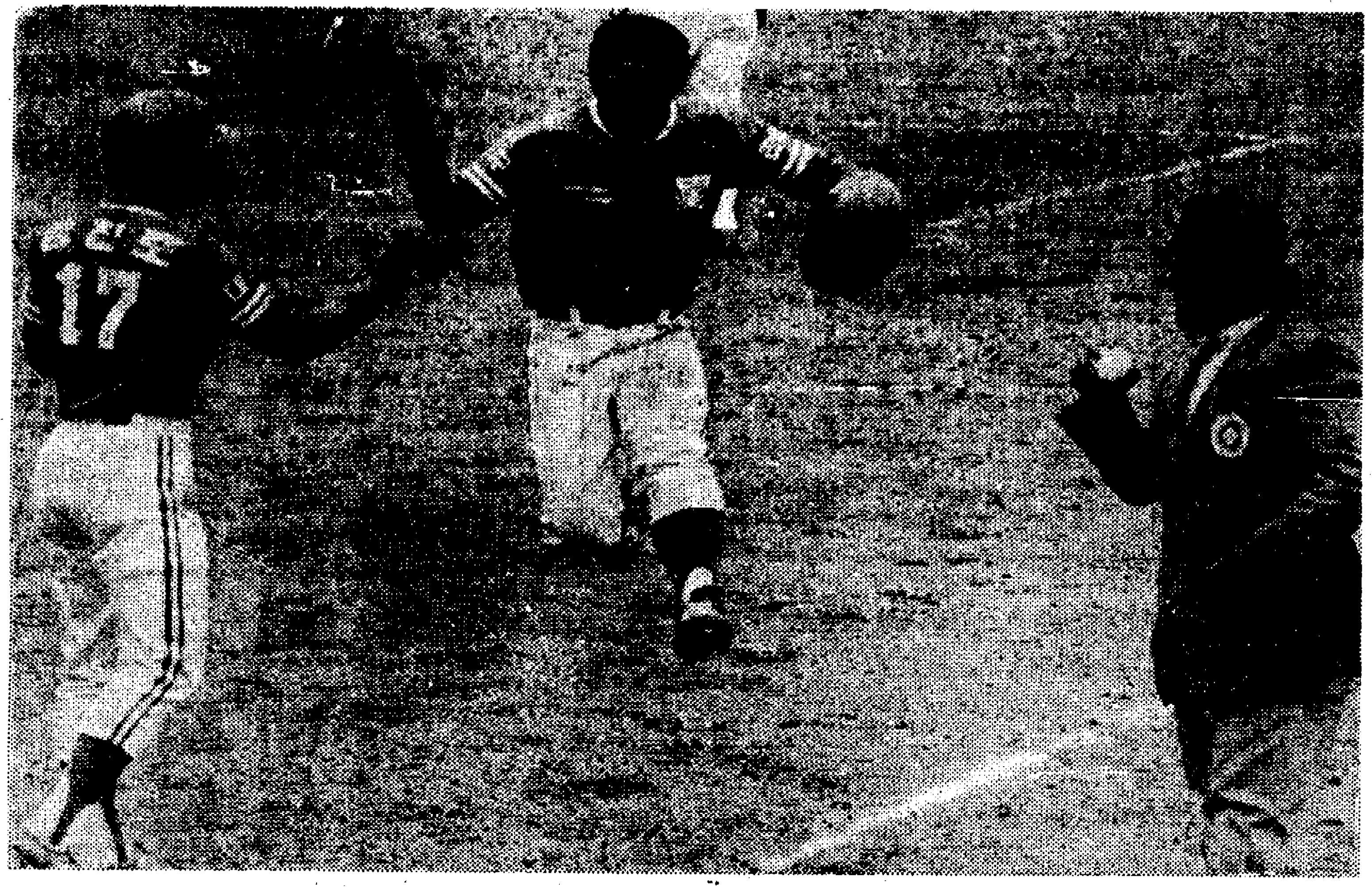
MBC, 개막전서 三星에 大逆轉劇 11대7

李鍾道 10회 굿바이 만루홈런

柳承安 7회 드리런이 起爆劑

프로野球

홈런, 홈런, 또 홈런…。韓國프로야구는 개막전에서 「프로의 진수」를 한껏 뽐냈다。성공적인 출발이었다。27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개막전에서 MBC靑龍과 三星라이온즈는 홈런을 주고 받는 일대 타격전을 펼친끝에 청룡이 연장 10회말 6번 李鍾道가 굿바이 만루홈런을 날려 11-7로 극적 역전승을 거두었다。라이온즈의 4번 李萬洙는 5회초 韓國프로야구 제1호 홈런을 날렸고 청룡의 白仁天 감독겸선수도 6회말 홈런을 터뜨려 20년만에 다시선 고국의 그라운드에 인사했다。청룡의 4번 柳承安은 7회말 동점의 드리런 홈런을 때려 청룡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청룡은 16안타, 라이온즈는 10안타를 각각 기록했다。청룡 선발투수 李吉煥은 1회초 라이온즈 1번 千普成과 2번 裵大雄을 잇따라 내야플라이로 잡아 순탄한 스타트를 끊는듯 했다。그러나 내야진의 잇단 범실로 2실점, 곤경에 빠져들어갔다。



"홈런1호는 내것" 삼성라이온즈—MBC청룡의 개막전。5회초 라이온즈4번 李萬洙가 제1호 홈런을 터뜨리고 경중경중 뛰며 홈인하고 있다。

라이온즈는 3번 咸學洙의 범타가 청룡1루수 金容允의 글러브에맞고튕겨나가면서 득점찬스를잡았다。咸學洙는 재빨리 뛰어 2루를 점령했고 이어 4번 李萬洙가 李吉煥으로부터 좌월2루타를 때려 선제 1점을 뽑고 5번 宋鎭浩의 유격수앞 땅볼이 다시 에러로 처리되는 사이 李萬洙마저 홈을 질러 2-0으로 리드를 잡았다。

1회말 1사후주자1루에서 청룡3번金容允의 유격수앞 땅볼을 병살로처리한 라이온즈는 2회초 청룡선발 李吉煥의 난조를틈타 3점을 추가, 안정권을 구축했다。라이온즈는 선두 7번 지명타자金漢根이 포볼을 고르고나가 8번 徐定煥의 보내기번트로 2진한뒤 9번 鄭丘旺의 우월3루타가 이어져홈인, 3-0으로 앞서 상승무드를계속살려나갔다。라이온즈는 계속된 찬스에서 1번千普成이 포볼을 얻어 주자1·3루를 만든뒤 2번裵大雄의 좌전안타로 1점을 보태고 청룡의 수비에러에 편승, 千普成마저 홈에살아 5-0으로 내달았다。

청룡은 2회말 6번李鍾道가 우월 2루타를 날려 첫포문을 연뒤 8번鄭永蒸의 우전안타가 터져 1점을만회하고 4회말에는 포볼로나가 5번지명타자 白仁天의 좌전안타로 3진한 4번 柳承安이 6번 李鍾道의 내야 땅볼로 홈인, 5-2로 뒤쫓았다。

개막전

삼성 라이온즈	2	3	0	0	1	1	0	0	0	0	7
MBC 청룡	0	1	0	1	1	1	3	0	0	4	11

▲라이온즈투수‖黃圭奉 李善熙(7회) 포수‖李萬洙

▲청룡 투수‖李吉煥 柳鍾謙(3회) 포수 柳承安

개인기록

MBC		타수	득점	안타	타점	삼진	사사
(三)	金仁植	5	1	2	0	0	1
(중)	宋榮雲	3	1	1	0	0	1
중	金容雲	0	0	0	0	0	1
후	裵勝熙	0	0	0	0	0	1
대	金容允	1	0	0	0	0	0
(一)	金龍達	5	2	2	0	1	0
(포)	柳承安	5	3	2	4	0	1
(지)	白仁天	3	2	2	1	0	3
(좌)	李鍾道	5	2	3	5	1	1
(우)중	申彦皓	4	0	0	0	0	1
(유)	鄭永蒸	4	0	3	1	0	1
(二)	趙 澔	1	0	0	0	0	0
(대)	崔正雨	1	0	0	0	0	0
二	朴在天	3	0	1	0	1	0
회 도 잔 실	0 0 11 3	40	11	16	11	3	11

▲홈런=白仁天(5회1점)
柳承安(7회3점)
李鍾道(10회만루)

삼 성		타수	득점	안타	타점	삼진	사사
(三)	千普成	3	1	1	0	0	1
(二)	裵大雄	5	0	2	1	0	0
(一)	咸學洙	5	1	0	0	2	0
(포)	李萬洙	5	2	2	2	0	0
(좌)	宋鎭浩	5	0	0	0	0	0
(우)	許奎沃	3	0	0	0	1	0
우	張泰洙	2	0	0	0	1	0
(지)	金漢根	3	1	0	0	0	2
(유)	徐定煥	4	0	1	0	0	0
(중)	鄭丘旺	4	2	4	1	0	0
회 도 잔 실	2 0 6 0	39	7	10	4	4	3

▲홈런=李萬洙(5회1점)

기록 제1호

▲홈 런=李萬洙(삼 성4번)
▲안 타=李萬洙(삼 성4번)
▲타 점=李萬洙(삼 성4번)
▲포 볼=金仁植(MBC1번)
▲3 진=金容允(MBC3번)
▲실책=金容允(MBC1루수)
▲병살타=金容允(MBC3번)

白仁天 20년만에 華麗한 데뷔

李萬洙, 첫安打·타점·홈런기록

5회초에 첫홈런이 터졌다。라이온즈 4번 李萬洙는 볼카운트 1-3에서 청룡의 구원투수 柳鍾謙의 제5구를 통타, 볼은 좌중간펜스를 넘어 스탠드 하단에 꽂히고 말았다。

관중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리며 박수를 보냈다。李萬洙씨는 펄쩍펄쩍 뛰며 홈에 뛰어들었다。

6회말에 7-3으로 뒤진 청룡은 白仁天감독이 좌중간펜스를 넘기는 솔로홈런을터뜨려 게임을뜨겁게했다。7회말。7-4로 뒤져패색이짙던 청룡은 4번 柳承安의 호쾌한 드리런홈런으로 일시에 동점을 만들었다。

청룡은 2사후 2번 宋榮云의 중전안타, 3번 金龍達의 우전안타로 만들어진 찬스에서 柳承安이 黃圭奉으로부터 3점 홈런을 뽑아 균형을 되찾았다。

7-7의 균형은 9회까지 깨어지지않아 게임은 연장전으로 넘어갔다。

라이온즈는 구원투수 李善熙가 9회말부터 컨트롤을 잃기시작, 불안한 가운데 게임을 이끌어나갔다。

청룡은 연장10회말 1번 金仁植이 데드볼로 나가면서 행운의 역전찬스를 잡았다。2사주자1·2루에서 白仁天감독이 경원4구로 나가 만루가되자 이날의수훈 李鍾道가 볼카운트 투볼 노스트라이크에서 李善熙의 제3구를 통타, 레프트펜스를 넘겨 4시간의 대접전을 승리로 마무리지었다。

연장 10회말 굿바이 만루홈런을 때린 李鍾道。

劉彰順총리 치사

<요지>

어린이엔 꿈을、野球人들엔 福祉의 길을

프로야구의 출범은 전국민에겐 건전한 여가선용을, 어린이들에겐 꿈을, 야구인들에겐 자립과 복지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칙의 경기인 야구를 통해 우리국민이 규칙을 더욱 잘지키는 국민이되고 야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함께웃고 즐기는 명랑사회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꾸준히 아끼고 사랑할때 프로야구는 이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수 있는 것 입니다。

더우기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서울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스포츠인구의 저변확대와 국민화합정신함양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때 프로야구의 출범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각구단주및 관계자 선수여러분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정진있으시기 바랍니다。

金學圭 헤딩결승골

嶺南大、高麗꺾고 선두에

대통령컵蹴球대회

제30회 대통령컵쟁탈 전국축구대회 5일째(27일·효창운) 8조 嶺南大는 후반32분 FW金學圭의 헤딩결승골로 대학라이벌 高麗를 1-0으로 꺾고 2승을 기록, 단독선두에 나섰다。

9조忠義는 全北大를 2-1, 서울시청은 光云工大를 2-0으로 누르고 각각 2승씩을마크, 30일결승토너먼트 진출을 놓고 한판승부를 겨루게됐다。

◇5일째

▲4조

관동대 2 (0-0, 2-0) 0 건국대 (2승) (1승1패)

충북대 2 (2-0, 0-0) 0 외환은 (1승1패) (2패)

▲5조

관성대 2 (2-0, 0-1) 1 현대자동차 (1승1패) (2패)

국민은행 0 (0-0) 0 경상대 (1승1무) (1승1무)

▲8조

전남대 1 (0-1, 1-0) 0 조흥은 (1승1패) (2패)

영남대 1 (1-0, 0-0) 0 고려대 (2승) (1승1패)

▲9조

충의 2 (1-1, 1-0) 1 전북대 (2승) (2패)

서시청울 2 (2-0, 0-0) 0 광운대 (2승) (2패)

全英 배드민턴大會

韓國남자 또 中共 격파

朴柱奉·李恩求조 준준결에

제72회 전英國 배드민턴선수권대회(런던)에 참가중인 韓國의 朴柱奉(전주농림고)李恩求(성무)조는 26일 남자복식 준준결승에서 中共의 「손·지안」「아오·시밍」조를 2-1(15-6, 8-15, 17-15)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 최소한 동메달을 확보했다고 선수단이 27일 협회에 알려왔다。韓國은 「스코틀랜드」「진 리안드」「트라버스」조와 결승진출권을 다툰다。

▲남자복식 준준결승

朴柱奉·李恩求 2 (15-17, 15-8, 6-15) 1 손지안·시밍 (중공)

▲동 3회전

朴柱奉·李恩求 2 (15-17, 7-14) 0 몬첸슨·티트리오 (캐나다)

田好寬등 7명 국제심판 자격

國際배구연맹

국제배구연맹은 27일 田好寬씨(현대감독)등 7명의 韓國심판에게 국제심판 자격을 부여했다고 협회에 통보해왔다。

국제배구연맹은 지난3월 3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심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심판=田好寬(현대감독) 鄭俊秀(충남배구협회전무) 朴永燮(경남배구협회심판위원) 李鈴鎭(부산배구협회 심판위원) 朴相元(쿠웨이트 대표팀감독) 安鎭淵(전남배구협회전무) 李庾元(강원도배구협회심판위원)。

大學농구

맞수 延·高大 3연승

明知·中央 제치고 先頭다툼

제19회 봄철대학농구연맹전 결승리그 2일째(27일·장충체) 延世는 明知를 99-72로, 高麗는 中央을 87-54로 각각 물리치고 나란히 3승씩을 기록,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延高大는 29일 마지막날 경기에서 격돌한다。

國民은 建國을 93-72로 울려 2승1패를 마크했다。

◇결승리그 2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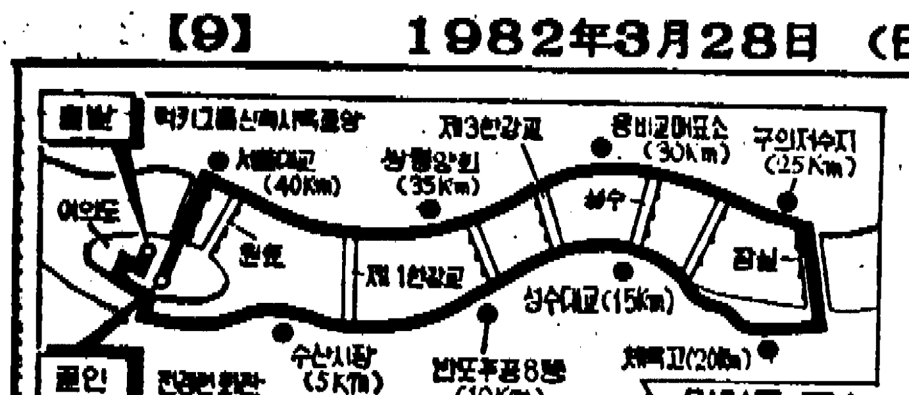
(2승1패)	국민	93	40-53 / 36-36	72	건국	(3패)
(3승)	고려	87	44-43 / 23-31	54	중앙	(1승2패)
(3승)	연세	99	51-48 / 38-34	72	명지	(3패)

新記錄을 뛴다

서울國際마라톤

오늘 大砲신호에 27國 7천4백명 일제히

우리선수는 「15分壁」돌파를 목표로



韓國마라톤 중흥을 내건 서울국제마라톤대회가 28일 정오 汝矣島광장을 출발, 蠶室대교를 돌아오는 42·195㎞의 한강변 환상코스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한국남녀대표선수 20명을 포함, 27개국 7천4백33명(남7천3백3명·여1백30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마라토너 「빌·로저스」(미국)와 여자세계 최고기록보유자 「엘리슨·로」(뉴질랜드)부한 외국인1백40명, 「팀스피리트」회가 미군장병 10명, 15살부터 80살에 이르는 국내일반선수 7천2백20명등이 출전한다。

이번대회우승후보로는 「빌·로저스」「로미·퍼슨」(스웨덴)「크리스·스튜어트」(영국)「보리·워런」(호주)「줄리안·그린롱」(벨기에)등으로 압축되고 있고 「아가피우스·마상고」(탄자니아)이 다크호스로 꼽히고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랭킹 9위의 「빌·로저스」는 대회전날인 27일 내한한데다 감기까지 걸려 최악의 컨디션으로 밝혀졌다。

여자부에서는 「엘리슨·로」의 단독질주가 예상되고 있으며 「슈·크렌」(미국)나 「이리·드레이크」(호주)가 뒤를 따를것으로 보인다。

한국 선수들은 국내기록을 깨는데 목표를 두고있는데 남자는 朴元根(육군3산)、여자는 林殷珠(조폐공사)에게 기대를 걸고있다。

한국선수들이 이번대회에 2시간15분대를 돌파하면 5천만원, 2시간10분이내면 1억원의 격려금을 받게된다。

2시간9분27초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마라토너 「빌·로저스」(미국)가 27일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하기위해 내한했다。

韓國남녀대표 파견

日 NHK컵 배구

日本NHK컵 배구대회가 여자는 5월14일부터 16일까지 「오사까」에서, 남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요꼬하마」에서 각각 열린다。

大韓배구협회는 27일 日本배구협회로부터 일정을 통보받고 여자대표는 5월11일부터 24일까지 파견, 대회가 끝난후 日本주니어및 실업팀과 친선경기를 갖고 24일 귀국토록 했고 남자대표는 5월13일 파견, 역시 日本주니어및 실업팀과 친선경기후 대회에 참가 24일 여자대표와 함께 돌아오도록 결정했다。

競馬 레이스 예상표 〈28일〉

◎인기마 ○상대마 △도전가능마 ※伏馬

제1경주 1,000m D—라

순	마명	성별	연령	중량	산지	기수	예상
1	후자도	♂	4	53	호주	조한우	※
2	신안호	♀	4	52	호주	김명국	◎
3	원술탑	↑	6	56	호주	박윤철	
4	덕광	♂	8	52	일본	한유열	
5	복음	♀	9	54	일본	박용태	
6	금성호	♀	7	51	일본	최근열	
7	통담길	♀	4	53	호주	이희영	△
8	한울	♂	13	55	일본	정지온	
9	파죽지세	♀	4	52	호주	이성일	○

제2경주 1,000m D—다

1	코스모스	♀	7	54	호주	이봉래	○
2	기적호	♀	7	51	일본	송재근	
3	연평도	♀	4	53	호주	백원기	◎
4	한가위	♀	6	55	호주	서창수	※
5	만리장성	♀	12	54	미국	강석철	
6	마스터	♂	8	52	미국	김문협	
7	신천지	♀	6	55	호주	김성헌	
8	만향록	♀	5	51	호주	배대화	△

제3경주 1,000m D—나

1	교향곡	♀	5	54	호주	강종문	○
2	유비무한	♂	10	55	미국	박홍진	
3	새동네	♀	5	54	호주	이희영	◎
4	행복호	♀	6	52	캐나다	김문협	
5	현해탄	♀	5	54	호주	김성헌	
6	한마음	♀	7	54	호주	김명주	
7	감나무골	♀	4	50	호주	정태문	△
8	여심	♀	5	53	호주	이성일	※

제4경주 1,000m D—나

1	폭설호	♀	6	55	캐나다	최태환	
2	밀림호	♂	4	54	호주	김명주	○
3	전광호	♀	8	54	일본	김문갑	
4	장군총	♂	4	54	호주	이희영	※
5	금상첨화	♀	4	53	호주	강종문	◎
6	공공칠	♀	7	53	일본	이성일	△
7	흑석류	♀	4	50	일본	최근열	
8	분황사	♀	4	53	호주	정지온	

제5경주 1,000m D—가

1	고려호	♂	4	54	호주	홍성범	○
2	거제도	♀	4	53	호주	박윤철	○
3	매화	♀	6	55	캐나다	김문갑	
4	파고다	♀	7	54	호주	정지온	△
5	벽계수	♂	7	52	호주	정태문	※
6	쌍룡	♀	7	54	호주	하재홍	
7	쎄이코	♀	7	54	일본	백원기	
8	정룡파	♂	5	55	호주	지용철	

제6경주 1,200m C—나

1	복민호	♂	4	54	호주	김충근	◎
2	용금포	♀	5	54	호주	백원기	
3	나드리	♀	5	54	호주	박용태	○
4	태성	♀	5	53	한국	이희영	
5	천왕봉	↑	8	55	호주	홍성범	※
6	국화섬	♀	8	53	일본	송재근	△
7	오작교	♀	5	54	호주	김창효	
8	최고봉	↑	6	56	캐나다	이봉래	

제7경주 1,200m C—가

1	법주사	♀	6	54	호주	조한욱	※
2	두룡실	♀	5	54	호주	강석철	△
3	나폿터	♀	6	55	호주	김창효	
4	천마산	♀	6	54	호주	이성일	
5	비로봉	♀	6	55	캐나다	정지온	
6	행주치마	♀	6	55	호주	지용철	△
7	상승	♀	8	54	일본	강종문	
8	옥계호	♀	4	50	호주	정태문	◎

제8경주 1,300m B—나

1	아산만	♀	5	54	일본	박용태	○
2	푸른하늘	♀	6	53	캐나다	조도길	△
3	드디어	♂	9	55	일본	박윤철	※
4	캐롤	♂	6	55	한국	백원기	◎
5	시추선	♂	5	55	호주	강석철	
6	수월레	♀	8	54	일본	김문갑	
7	풍운아	♂	8	52	일본	김용남	
8	황성옛터	♀	5	54	일본	지용철	

제9경주 1,800m

1	라일락	♀	6	53	호주	이희영	
2	여의주	♂	7	54	일본	김명국	△
3	고모령	♀	5	54	호주	백원기	○
4	우주호	♂	7	54	호주	정지온	※
5	월정사	♀	6	52	호주	김충근	
6	칙칙폭폭	♂	5	52	호주	이성일	
7	방방곡곡	♀	7	53	호주	조도길	
8	천하대장군	↑	7	55	호주	최태환	

제10경주 1,800m

1	수덕사	♀	5	54	호주	서창수	
2	경축호	♀	6	55	호주	하재홍	△
3	가오리	♀	6	55	캐나다	지용철	○
4	백발백중	♂	7	55	호주	김귀배	◎
5	섬섬옥수	♀	6	55	호주	김문갑	※
6	자연호	♀	6	53	호주	강석철	
7	전광석화	♀	6	54	호주	조한우	
8	푸른지대	♂	6	56	호주	김충근	

오늘의 경기

마라톤

제1회 서울국제대회 (12시)

프로야구

▲MBC-OB(3시·서울운)▲롯데-해태(2시·부산구덕운)▲삼성-삼미(2시·대구시민운)

축구

대통령컵쟁탈전국대회 6일째▲효창운Ⅱ상업은-부산대(11시) 명지대-동아대(12시45분) 해군-중앙대(2시30분)▲대우-단국대(4시15분)▲수원공설운Ⅱ한전-서울대(2시30분) 성무-인천체(4시15분)▲의정부공설운Ⅱ기업은-충남대(3시)

농구

봄철대학연맹전결승리그 3일째(장충체) 전국-명지(1시30분) 연세-중앙(2시50분) 고려-국민(4시10분)

재채기 콧물 「스토판 캅셀」
스톱, 스톱……
Stopan
재채기 전문치료제
스토판 캅셀

새로 나온 12시간 감기약—

감기가 많이 나도는 계절입니다. 재채기 콧물로부터 시작하는 감기, 감기는 코가 근질근질하고 재채기가 나며 코가 막히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에는 새로나온 스토판 캅셀이 잘 듣습니다.

스토판 캅셀속에는 빨리 작용하는 과립과 12시간 동안 일정하게 작용하는 시한립이 고루 섞여있어 감기의 여러 증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하는데 적당합니다. 따라서 1캅셀씩 하루 두번 복용으로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감기초기증상 치료제
스토판® 캅셀
재채기, 콧물, 코막힘에—
값: 1캅셀 170원
건강을 지키는 동아제약